■ 김효신의 포르투갈 여행기

포르투, 도우루 강이 흐르는 곳

27. 포르투 시내 관광

포트 와인 시음이 끝나자 관광객들은 주섬주섬 일어서기 시작했다. 물론 진열되어 있는 포트 와인을 구매하는 것이 다음 순서였다. 우리도 샀다. 시음한 토니와 '라그리마' 를 두 병 다 살까 하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 '라그리마' 한 병만 사기로 했다. 현지 와이너리에서 시음하고 구매한 오리지널 '라그리마' 라고 생각하니 괜히 더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나중에 집에 돌아 와 검색해 보니 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포트 와인 와이너리 견학은 이렇게 끝났다. 마치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무른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하얀 벽돌 건물 본관에서 나와 매직 트레인 꼬마 기차에 다시 올랐을 때는 도착했을 때부터 겨우 약 한 시간 정도 경과했을 뿐이었다. 포트 와인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관광객들은 떠들고 웃으면서 왁자지껄하다가 잠시 후 조용해졌다.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긴 사람들, 핸드폰을 들여다 보는 사람들 속에서 R과 나는 어깨를 맞대고 앉아 넓은 창으로 밖을 바라 보았다. 이번에는 꼬마 기차가 가는 방향 반대로 맨 뒷좌석에 앉아서 간다. 어느새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빗 속에 '레알 콤파니아 벨랴 와이너리' 는 비에 젖은 녹색 풍경 속으로 멀어져 갔다.

와이너리 견학에 포함된 포르투 시내 관광은 별것이 아니었다. 그냥 돌아가는 길에 노바 데 가이아 시와 포르투 시 일부를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포르투갈어와 영어로 안내 방송이 나오기는 했는데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 신경 써 듣지는 않았다. 달가닥거리며 천천히 달리는 꼬마 기차 속도가 지나가는 풍경을 관찰하는데 딱 알맞기는 했다. 도로에 자동차도 별로 없어서 장난감 같은 꼬마 기차가 지나가도 전혀 불편이 없다.

꼬마 기차가 달리는 동안 날이 잠깐 개어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시내는 한산하고 평화로웠다. 포르투는 포르투갈 제 2 도시인데도 구시가지는 작은 변두리 도시 같은 느낌이 물씬하다. 그래서 더 친근하고 정감 있었다. 강과 바다 등 자연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오래 된 건축물들을 대부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역사가 서려 있다는 느낌도 살아 있다. 반면, 역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위기 대신 유럽의 대부분 오래된 도시가 그렇듯 옛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고여 있다는 인상도 적지 않았다.

매직 트레인 꼬마 기차는 아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 왔다. 처음 탑승한 때부터 와이너리 견학, 포트 와인 시음, 시내 관광을 거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딱 두 시간 걸렸다. 더 본격적인 투어를 원하는 사람들은 도우루 강 유역 포도밭 견학까지 포함된 6 시간 길이 티켓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우리에겐 두 시간 정도의 투어가 딱 좋았다. 일인당 12 유로 가격도 아주 마음에 들었다.

꼬마 기차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모두 제 갈 길로 흩어졌다. R과 나도 언덕길을 내려갔다. 배가 고파서 이제 점심을 먹기로 했다. R이 가고 싶었다는 레스토랑이 근처 골목에 있어 가 보았는데 하필이면 쉬는 날이었다. 'Flor Dos Congregados' 라는 작은 식당, 슬로우 푸드로 유명하다고 한다. 포르투갈 정통 슬로우 푸드를 맛볼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게 되었다. 우리는 터덜터덜 골목길을 다시 내려 갔다. 걷는 동안 내게 좋은 생각이 떠 올랐다. "우리 '프란세지냐' 먹으러 갈까? 배가 많이 고프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R은 펄쩍 뛰어 오를 듯 좋아했다. "엄마, 정말이지? 빨리 가자!" 우리는 재빨리 까페 산티아고 주소를 검색했다. 걸어서 10 분 거리. 바로 이 근처구나! R 과 나는 신이 나서 서둘러 골목길을 빠져 나왔다.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unded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환영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LA
(714) 224-8394 OC

투원전기

각종 전기공사
증축,신축,고장수리

Lic#970726

저렴한 가격
작은일도 환영

714.337.5112, 562.760.2210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모시는
남가주 한인 장의사 이효섭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인사드립니다.
장의사로서 장례 일정을 상담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시신방부사로서 가신 님의 몸을 직접 방부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기술과 정성입니다.
남가주에서 한인으로는 유일합니다. (*현재 저의 파악)
장례는 종교적 문화적 예식입니다.
묘지(Grave)는 묘지공원(Cemetery)에서 구입하셔도
장례예식(Funeral Service)은 언어와 문화가
동일한 동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의사가 있으면 마음 든든하지요.
네 맞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으면
어려울 때 큰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장의사가 있으면 힘든 시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믿을만한 장의사를 꼭 알아두세요.

• 매장, 화장, 장례보험
• 풀러턴 소재 스캇 멕콜리 패밀리 장의사(FD 1593)와 함께 일합니다.
• 개인 상담, 단체모임(교회)에서 무료 세미나 해드립니다.
• 경력:10년 이상의 장의사, 시신방부사. 로즈힐 묘지 근무.

714.951.2520
714.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